

숨은 감염자 찾기...의심증상 없어도 보건소서 무료 검사

거리두기 단계·지역·역학적 연관성 무관...전국민 의무화는 고려 안해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 없이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지역, 증상, 역학적 연관성에서 (의심환자) 사례 정의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거리두기가 2 단계 이상이거나 역학적 연관성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료 검사가 진행됐다. 그 밖에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도권 등지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

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현재 진단검사가 이뤄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경우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임시 선별검사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그동안 비수도권에서는 무증상인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더라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에서도 증상 구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윤 반장은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인력 지원 부분 등을 논의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지침을 개정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검사량과 검사 기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권유가 있을 때는 특정 지역에 한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경남 진주·거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입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지원이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안 아프게..." 코로나 백신접종 모의훈련 7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내 북구구민체육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백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실제 접종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올 3개월 연속 인구 감소...65세 이상 고령층이 청소년보다 많아

출생자 수 10년 전 절반, 세종·경기만 증가...전남 6738명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줄었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65세 이상이 청소년층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에 비해 출생자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가 늘어난 시·도는 17곳 중 세종시와 경기도 2곳에 그쳤으며, 전남은 6738명이 줄었다.

◇올해도 인구 감소세...자연 감소 1만명·거주불명자 직권말소 11만6000여명=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5905명으로 지난해 말(5182만9023명)보다 12만3118명(0.24%) 줄었다.

◇올해도 인구 감소세...자연 감소 1만명·거주불명자 직권말소 11만6000여명=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5905명으로 지난해 말(5182만9023명)보다 12만3118명(0.24%) 줄었다.

◇올해도 인구 감소세...자연 감소 1만명·거주불명자 직권말소 11만6000여명=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5905명으로 지난해 말(5182만9023명)보다 12만3118명(0.24%) 줄었다.

만370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출생자는 6만8099명, 사망자는 7만8469명이었다. 출생자는 작년 동기보다 5614명(7.6%), 10년 전 동기보다는 5만7410명(45.7%) 각각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로는 2824명(3.5%) 줄었으나 10년 전 동기와 비교해서는 1만525명(15.5%) 증가했다.

◇65세 이상이 청소년 추월...세대수 역대 최대, 세대원 수는 최저치=아동·청소년·청년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기 말 아동(0~17세) 인구는 765만명, 청소년(9~24세) 인구는 846만명, 청년(19~34세) 인구는 1045만명으로 모두 작년 말보다 감소했다. 작년 3월 말과 비교하면 각각 2.8%, 2.7%, 1.1% 줄었다. 10년 전인 2011년 동월 대비로는 아동은 244만명(24.2%)이나 줄었고 청소년은 202만명(19.3%), 청년은 103만명(9.0%)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는 계속 늘었다.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857만4588명, 70세 이상은 571만5548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7%와 2.9%, 10년 전 동월 대비로는 54.6%, 56.5% 각각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세 이상이 16.6%, 70세 이상은 11.0%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2019년 아동 인구를 추월한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청소년 인구도 뛰어넘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5%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7개 시·도 중 2곳만 인구 증가...수도권 집중 여전, 전체 인구의 50.2%=작년 말보다 올해 1분기 말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경기(3만8823명 증가)와 세종(4631명 증가) 2곳에 그쳤다.

서울(6만9981명 감소, 이하 감소 폭), 부산(1만9547명), 경남(9753명), 대구(9471명), 울산(6763명), 전남(6738명), 전북(6천654명), 강원(6천441명), 인천(6천367명), 대전(5천419명) 등 나머지 15개 시·도 인구는 감소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모두 2600만 782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는 작년 말(2603만8307명)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비율은 그대로였다. /연합뉴스

전남도, 여성농업인 육성에 5년간 8331억 투입

4대 전략 16개 과제 기본계획 수립

전남도는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축인 여성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8331억원을 투입하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은 4대 전략 16개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양성평등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이 4대 전략이다. 전남도

내 여성농업인은 총 15만7000명으로, 도 전체 농업인구 29만8000명의 52.8%에 이른다.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도가 한층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계획에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전문인력화 지원에 중점을 뒀다.

특히 새로운 정책변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확보 등 추진 체계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출산·보육·농사일·편의장비·보건서비스·문화활동 지원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실행계획을 세웠다. 실행계획에는 여성농업인 창업·농식품 유통과정 교육,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 청년 여성농업인 정착지원 및 창업농장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행복바우처 지원, 농가 도우미, 공동 아이돌봄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대책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지역 여성농업인이 전문성을 갖고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환경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성인 10명 중 8명 백신 맞겠다"

65세 이상 최고·20대 최저...화이자·AZ·모더나 순 선호

18세 이상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공공보건의료·감염병관리지원단의 백신 신뢰도 조사 결과 만 18세 이상 광주시민 1357명 중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이 78.1%, 맞지 않겠다고 8.1%, 미결정이 13.8%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접종 의향이 91.3%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66.6%로 가장 낮았다. 40대 84.4%, 50~64세 82.5%, 30대 78.9% 등이었다.

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안전성 불신 66.9%, 부작용 불안 41.8%, 기저질환 23.3%, 정부 정보 불신 21.9% 순이었다. 백신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뉴스 74.0%, 정부 브리핑 47.5%, 유튜브·SNS·블로그 26.1% 등이었다. 안전 신뢰도는 평균 5.99점

(10점 만점), 백신 확보와 접종에 대한 평가는 평균 6.55점이었다.

선호 백신은 화이자 42.4%, 아스트라제네카 16.5%, 모더나 12.4%, 얀센 4.1% 순이었다. 접종 후 마스크 착용 여부는 종식 이전까지 착용하겠다고 72.3%, 종식 이후에도 착용하겠다고 24.5%, 접종 이후에는 착용하지 않겠다고 3.2%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까지 65세 이상이 백신을 맞고, 3분기부터 나머지 연령이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박항 시 복지건강국장장은 "백신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랏길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질병청의 검증과 거치고 있다. 백신 관련 정보는 질병청과 광주시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 환영
당일처리. 010-6837-4700

잘 안팔리는 교환
전국 부동산
하실 분. 010-3605-5000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 중개환영. 010-3605-5000

수기동
제일OP

- ▶ 20층 중 8층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매매 - 1억1000만원
- ▶ 20층 중 20층
- 계약 252㎡, 전용면적 142㎡
- 매매 - 3억3천만원
- ※ 사무실 전용, 코너, 주차 편리
- 문의. 010-3605-5000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1평)**

금액 **71억**
(5월1일 이후 85억)

4월 30일까지만 추진합니다

문의 **010-6432-5070**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용주(이하 "갑")와 주식회사 대유건설(이하 "을")에서는 서기 2021년 4월 6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부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4월 8일

"갑" 주식회사 용주
전라남도 여수시 용촌면 서부로 1959
대표이사 주영수

"을" 주식회사 대유건설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사장길 4.2층
대표이사 문 대 화

산행안내

4월11일(일)
▲광주Kj산악회 4월11일(일)
대구 진달래명산&비슬산, 월광봉, 조화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북 은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